

日本の 石油産業

構造改編 현황과 展望

大韓石油協會 · 弘報室

이 資料는 최근 日本의 通産省 산하의 石油審議會石油部會에서 의결된 石油審議會石油部會小委員會의 보고서로서, 이 보고서는 석유산업 구조 개편의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方向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石油産業이 스스로 자주적이면서 적극적으로 過剩시설을 처리하고, 元売의 集約화와 主導會社の 설립을 추진하며, 中間溜分의 안정공급확보와 換리스크對策등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編輯者註)

I. 石油産業과 石油情勢의 변화

1. 최근의 石油情勢

(1) 지난 3월 OPEC 임시총회에서 基準原油(아라비안 라이트)가격을 배럴당 34달러에서 29달러로 인하하기로 결정하는등 최근 국제석유정세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 국제석유需給은 中長期的으로 점차 逼迫化되리라는 기본적인 方向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中東의 정치정세등 石油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여전히 流動的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石油의 안정공급확보를 비롯한 에너지對策을 계속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2) 日本의 石油製品수요는 지난 79년 이후 해마다 계속 감소되고 있으며, (前年對比, 80년 10.3% 감소, 81년 7.0% 감소, 82년 6.3% 감소) 83년에도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수요감소와는 대조적으로 수요구조중 中·輕質화가 착실

히 진전되고 있다. (수요구성비, 76년 揮發油·中間4製品 42%, B-C油 43%, 82년 揮發油·中間4제품 56%, B-C油 33%)

(3) 또 현재 綜合에 너지調査會에서 長期에 너지需給展望의 총점검이 進行되고 있는데 現행전망과 現實과의 乖離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 지난 3월의 原油가격인하로 석탄등의 代替에 너지와의 상대적가격관계에 기본적인 변화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석유수요의 대폭적인 增加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또 日本경제에서 차지하는 에너지코스트의 절감등의 요청을 배경으로 綜合에 너지調査會의 에너지정책 총 점검에 있어서도 안정공급의 확보와 아울러 에너지코스트의 저하가 기본적인 검토 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5) 한편 換率은 지난 81년말의 円貨강세에서 82년 가을에는 円貨약세를 보이다가 그후에 反轉하는 등 여전히 큰 변동을 계속하고 있다.

(6) 이러한 정세하에서 石油産業 전체의 경영동향

을 보면, 지난 81년에 3,456억円の赤字를 낸 후, 82년 상반기에도 1,237억円の 경상적자를 기록했다. 82년도 전례로는 年末부터의 円貨당세에 힘입어 경상손익베이스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累積缺損을 해소하기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또 국내수요의 감퇴등으로 석유산업의 경영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石油産業 構造改編의 필요성

(1) 국내 석유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이와 같은 原油가격의 하락등의 국제석유정세의 변화아래에서도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

(2) 이와 같은 환경하에서 석유산업에 대해 수요에 적절히 대응한 공급의 확보, 에너지코스트의 절감등의 요구에 부응하는 노력이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석유산업이 주변환경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本小위원회가 지적한 구조개편을 실현하기 위해 자주적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또 이번의 원유가격인하효과에 대해서는 이를 市場메커니즘을 통해 국민경제에 환원한다는 요청에 부응함은 물론이지만, 스스로 過當경쟁체질에서 탈피하여 불필요한 경영체질의 약화를 지양하고, 신뢰받는 石油産業의 형성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II. 過剩施設處理의 추진

1. 處理計劃수립의 배경

과잉시설의 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観点에서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서둘러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지난 81년 12월의 小委員會보고에서 지적한 바 있다.

(1) 과잉시설처리는 자율적이고 질서있는 石油産業의 체제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다.

(2) 석유의 안정공급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나친 과잉시설은 문제가 된다.

(3) 과잉시설의 처리를 계기로 企業의 합리화, 집약화의 촉진이 기대된다.

이를 토대로 82~86년도 석유공급계획에서는 상

압증류시설에 대해 하루 1백만배럴의 処理목표량이 책정되었으며, 각 정유사는 83년도 상반기까지 시설폐기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2. 處理計劃의 概要와 評價

(1) 이번에 제출된 처리계획에 따르면, 처리계획량은 하루 총97만배럴인데 처리목표량은 이미 달성되었다. 이를 처리형태별로 보면, 시설폐기가 하루 15만배럴, 休止 하루 39만배럴, 能力축소 하루 43만배럴이다. 그 결과 日本의 原油정제능력은 하루 497만배럴로 82년 이후 처음으로 하루 500만배럴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2) 또 各精油社의 처리계획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석유산업의 구조개편의 진전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本拠地대책이나 환경보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면서 정유공장이나 시설의 最適배치, 최적가동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능한 한 시설단위로 폐기, 또는 休止를 실시하고 있다. (시설단위의 폐기는 6基, 休止는 9基로 兩者를 합한 처리계획량은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休止시설은 필요한 조건정비를 거쳐 앞으로 폐기될 것도 실질적으로 폐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② 시설의 폐기, 休止 또는 능력의 감축에 따라 다른 시설로 능력을 移設하거나 집중함으로써 효율적인 원유처리체제로의 移行을 꾀하는 한편, 생산의 受委託추진등 다른 기업과의 제휴강화등을 지향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③ 지역적인 需給균형의 확보외에 2차 시설의 설치상황등에 유의하여 처리대상시설을 결정하는 한편, 폐기 또는 休止된 설비에 대해서는 시설고도화의 관점에서 2次시설에의 유효활용을 검토함으로써 제품의 高附加價值化에 힘쓰고 있다.

④ 個個의 기업을 초월한 그룹체로서의 구조개편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이와 같은 各社의 처리계획은 量的으로 처리목표량을 이미 달성하여 석유산업의 구조개편의 진전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신뢰받는 석유산업의 형성에 중요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石油産業의 구조개편의 실효를 거두고, 자율

적이며 질서있는 석유산업체제를 확립해 가기 위해서는 과잉시설의 처리와 함께 元壳의 集約化, 시설구조의 고도화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불가결하지만, 정유사 가운데에는 이번 처리계획의 책정을 계기로 더욱 효율적인 생산체제의 실현, 기업간의 제휴강화등 보다 실효성있는 구조개편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시키는 경우도 있다.

Ⅲ. 精油産業 시설고도화의 方向

석유산업이 앞으로 수요구조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동적인 석유정세에 맞추어 수시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2차시설능력의 확충을 통한 시설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石油製品需給構造변화와 精油産業의 적극적 対応方向

(1) B-C 油需要의 급격한 감소등에 의한 석유제품수요의 中·輕質化의 진전, 原油공급의 重質化의 진전등 최근의 석유제품수급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고, 석유제품 전체의 수급균형을 유지하며, 안정공급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2차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시설구조의 고도화는 石油企業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中長期的으로 원유처리량의 대폭적인 伸張이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生産油種의 高附加價值化를 통해 경영체질의 개선에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 2차 시설능력의 확충·강화는 상대적으로 값싼 重質原油의 이용을 가능케 하는 한편 製品輸入환경의 변화, 에너지코스트절감 효과를 높이는등 내외 정세변화에 대응하는데도 도움이 되며, 다른 구조개편대책과도 연결되어 석유산업이 市場에 커니즘에 맞는 석유제품가격체계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2차 시설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元壳단계에서의 集約化등 석유산업의 구조개편방향에 맞추어 共同投資, 공동이용등 생산단계에서의 기업간세계 강화에도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

2. 2次施設導入의 指針

(1) 장기적인 석유제품수급전망에 맞추어 석유제품의 안정공급을 확보해 가기 위해서는 83~87년도 石油供給計劃에서 B-C 油 取率이 82년도의 31%에서 87년도에는 27%까지 저하되고 있는 경향이 그후에도 계속 지속된다는 전망을 전제로 하여 바람직한 生産取率구조의 실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탈황장치등 기존시설의 分解型으로의 개조, 접촉분해장치, 수소화분해장치, 열분해장치의 新·増設 또는 개조로 2次 시설능력을 증강시킬 필요가 있다. 또 앞으로 石油製品수요의 中·輕質化에 맞추어 석유제품의 안정공급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본격적 重質油分解시설의 연구개발과 도입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各精油社의 2次시설의 구체적 도입에 있어서는 각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각사의 자주적 판단을 기본으로 하되, 석유제품의 안정공급확보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판매동향, 원유조달상황등에 유의하는 한편, 2차시설의 적절한 도입을 위해 다음의 諸點을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적정규모를 확보하는 한편, 시설에 따라서는 스케일 메리트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한 한 효율화, 합리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② 정유공장의 기존시설구조를 충분히 감안하여 시설구조전체의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分解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타입의 정유공장에서는 減圧輕油등의 원료유를 대상으로 한 분해시설, 분해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타입의 정유공장에서는 보다 重質의 殘渣油를 대상으로 한 분해시설을 중심으로 2차시설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③ 제2차시설의 경제성의 관점에서 도입시설의 組合에 충분히 유의하는 한편, 저렴한 水素源의 활용, 수요가와의 유기적 제휴등을 통한 副産物의 효율적 처리등을 도모함으로써 가능한 한 경제성향상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④ 投資리스크와 자금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시설도입의 효율화, 합리화를 촉진하는 것이 불가결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투자, 공동이용등의 형태를 취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共同重質油処理센터 구상은 이와 같은 관점에

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⑤ 地域需給균형의 개선, 유통구조의 합리화의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가해질 필요가 있다.

3. 施設構造高度化를 위한 政策的 支援의 기본방향

시설구조의 고도화는 무엇보다도 石油産業을 둘러싼 환경변화에의 自主的 対応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자기경영책임원칙의 철저를 기본으로 해야 하며, 정부도 석유기업의 자주적 노력을 촉진시키는 방향에서 적절한 정책적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특히 거액의 시설투자가 필요하게 될 2차시설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所要자금의 지원조치를 확충·강화하는 한편, 日本의 수요구조에 맞는 본격적인 重質油分解시설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IV. 企業間 제휴강화와 元売의 集約化

1. 企業間 제휴강화

앞서 小委員會보고에서는 原油의 조달과 운반, 생산의 受委託, 제품의 유통면에서의 제휴등을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는데 원유의 공동구입, 생산의 受委託, 제품의 상호용통및 油槽所의 공동이용을 예로 들어 그 진전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原油의 共同구입

原油의 공동구입은 기존의 기업그룹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최근 총수입량에 대한 비율로 보아 60% 정도이다. (이밖에 G-G 原油, 자주개발원유등의 거래를 포함하면 70% 정도에 이르고 있다)

원유의 공동구입에는 수량 결정에 따른 교섭포지션의 강화, 共同配船에 의한 수송합리화, 少量계약에 의한 多港積의 회피등의 장점이 있어 그룹内の 제휴강화의 관점에서 이를 확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앞으로 그룹内の 제휴강화나 새로운 그룹의 형성에 의한 석유供給시스템을 전체로 효율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메리트가 있는 공동구입

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生産의 受委託

생산의 受委託에 대해서는 이미 60%의 석유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석유기업은 생산의 受委託에 의해 정기보수時, 사고발생시등의 일시적인 능력부족의 補填외에 交錯수송의 회피등 생산합리화의 확보를 꾀하고 있다.

생산의 합리화를 위한 生産受委託의 실시상황을 보면, 최근의 현저한 例로서 분해장치, 탈황장치등을 공동이용하는 生産油種의 高附加價值化를 위한 受委託이 증가하고 있으며, 82년에는 이러한 受委託關係를 형성하고 있는 精油社는 전체의 3분의 1에 이르고 있다. 또 과잉시설의 처리와 관련하여 企業그룹내에서, 또는 기업그룹을 넘어서 생산의 受委託을 활용하고 있는 例도 보인다.

이와 같은 生産의 합리화, 즉 석유산업의 구조개혁의 방향에 따라 受委託關係의 형성은 앞으로 더욱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製品의 相互融通및 油槽所의 共同利用

① 元売会社間의 제품의 상호용통 (이른바 바터조인트)의 실시상황을 총판매량에 대한 비율로 보면, 燃料油합계로 80년 18%, 81년 19%, 82년 21%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품의 상호용통에는 交錯수송의 배제등 유통합리화의 하나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일시적인 需給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등이 있는데, 前者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油槽所의 공동이용등과 믹스하여 이루어지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② 한편 元売会社가 사용하고 있는 油槽所는 82년 12월말 현재 709개소, 탱크는 5,576基에서 83년 3월말에는 각각 621개소, 5,353基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밖에 他社 油槽所内の 탱크를 賃借하는 등의 油槽所의 공동이용도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③ 이와 같은 제품의 상호용통및 油槽所의 공동이용에 대해서는 종업원 또는 下請業者의 재고용문제, 설비仕様の 不統一등의 문제점도 있으나 대부분의 元売会社가 합리화등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元売의 集約化

(1) 국내 석유산업이 過當경쟁체질을 개선하고 자율적인 산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軸이 되고 있는 元壳단계에서 集約化를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인 바, 元壳의 集約化에 있어서는 單數 또는 복수의 主導會社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석유제품의 수요는 中長期적으로 볼 때 대폭적인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외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율적인 산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元壳의 集約化가 필요하다.

(2) 석유산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元壳의 集約化에 대해 一般論으로서 그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나 행동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元壳의 集約化가 진전되지 않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3) 석유업계는 환경변화에 대한 自主的 対応으로서 시설처리를 비롯한 구조개편노력을 시작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노력이 結實을 보아 신뢰받는 석유산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元壳단계의 集約化가 불가결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精油社들은 앞으로의 경영환경이 어려우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장기적인 眼目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기경영책임을 기본으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元壳단계에서의 集約化는 특약점 이후의 유통단계에서의 集約化로 연결되는데 석유산업의 과당경쟁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元壳의 集約化와 함께 유통단계에서의 과당경쟁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통단계의 기업에 있어서도 어려운 경영환경을 直視하고 철저한 경영근대화와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中小企業近代化促進法에 맞춘 구조개편등에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換 리스 크 對 策

1. 換 리스 크 對 策의 現 狀

(1) 앞서 小委員會보고에서는 換金融面을 중심으로 한 換시세의 변동이 석유산업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換에약의 활용, 輸入금융의 円금융화등에 의한 換리스크對策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제언했다.

(2) 日本 석유산업의 換에약비율은 81년 9월말 현재 5%이던 것이 그후 점차 늘어나 82년 12월말에는 약 30%선에 이르고 있다.

또 83년 3월말 현재의 換에약비율은 약 24%로 약간 감소했으나, 이는 原油價格인하등을 배경으로 한 円貨강세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2. 換 리스 크 對 策 方 向

(1) 石油産業이 강구하고 있는 換리스크대책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진전되고 있지만, 個個의 기업간에 상당한 격차가 보이고 있으며, 변동환율제하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換率의 등락에 대해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기업은 中長期적인 觀點에서 계속 착실하게 換리스크對策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또 換리스크대책에도 한계가 있고, 仕入코스트의 변동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석유산업은 換率변동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도록 체질강화와 구조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환율변동에 대한 對應은 기업의 노력으로써 해결될 수 없는 면도 있어 정부에서도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

VI. 앞으로의 推 進 方 向

1) 앞서 小委員會보고 이후 石油政策의 추이를 보면, 이 보고의 提言에 따라 적극 市場메커니즘의 활용을 도모한다는 觀點에서 이른바 價格실링制의 폐지, 精油社의 석유제품생산계획에 대한 지도의 완화등 행정개입을 점진적으로 축소·완화하고 있다. 또 석유화학원료용 나프타에 대해 석유화학기업이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輸入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通産省결정이 나왔으며, 나프타의 신규의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輕質溜分 新用途기술개발사업의 개시, 中間溜分の 안정공급에 關連한 原油關稅輕減제도의 신설, 석유산업의 체제정비를 위한 정책금융조치의 강구 등 구조개편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책이 나오고 있다.

2) 이 보고는 과잉설비의 처리, 시설 고도화등을 중심으로 앞서 小委員會에서 제시한 석유산업의 구조개편에 關한 提言의 실시상황을 그후의 환경변화

에 맞추어 재검토, 石油審議會石油部會에 보고한 것이다. 本小委員會로서는 석유산업의 구조개편이 석유업계의 의식개혁과 자기 경영책임을 기본으로 하는 自主的 対応에 의해 가일층 진전될 것을 요망한다. 또 금융기관이 종래의 거래관계등에 구애됨이 없이 大局的 견지에서 구조개편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 정부도 석유업계의 対応을 전제로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誘導조

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또 歐美諸國의 석유산업도 석유제품수요의 감소, 경영악화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들 諸國에 조사단을 파견, 최근 석유정세변화에 따른 各國의 석유산업동향, 석유정책 방향등을 조사하는 것이 日本의 석유산업구조개편의 추진방향과 석유정책방향등의 검토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믿어진다.*

□ 海外石油產業動向 □

昨年 世界石油消費 3%減少

BP(British Petroleum) Co. 의 年刊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에 따르면 昨年の 全世界石油消費는 3%가 減少한 5천8백51만B/D로 나타났으며, 이는 1980년에 비해 10%가 減少한 것이다.

BP의 發表에 의하면, 昨年の 石油生産은 再昨年の 5천9백14만B/D에서 4.9%가 減少한 5천6백21만B/D에 머물고 있으며, 消費國의 在庫放出이 平均 2백30만B/D에 달하였다.

上記 數値를 提示하면서, BP의 石油事業部長인 Bryan Sanderson氏는 석유회사 비축재고가 1980년의 100~103日分에 비교해 볼 때 現在 81日分에 해당할 것으로 推定했다. 또한 그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消費國政府들에 의한 備蓄在庫에 맞추기 위하여 石油會社가 약 76日分으로 그 在庫를 줄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1978년에는 政府備蓄在庫가 4日消費量밖에 되지 않았으나 오늘 날에는 약14~15日分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消費·生産趨勢

BP에 의하면, 1982年 한해동안 石炭, 原子力 및 水力의 1次에너지市場에서의 比重이 높아진데 비해 石油와 天然가스는 줄어들었다.

西유럽에서는 1982年の 石油消費量이 1981年の 1천3백5만B/D에서 1천2백46만B/D로 減少되었으며, 北美의 石油消費量도 1981年の 1천7백44만B/D에서 1천6백49만B/D로 減少하였으나 共產國의 石油消費量은 1천2백80만B/D에서 1천2백82만B/D로 근소하게 증가하

였다.

OPEC의 石油生産은 17.6% 감소하였는데, 그 內容을 보면 사우디 아라비아의 産油量이 1981年보다 33%가 減少한 平均 6백69만B/D였으며 쿠웨이트의 産油量은 28.2%가 減少한 69만5천B/D에 머물렀다.

OPEC會員國중 유일하게 増産을 한 이란은 49.4%의 增加率을 보여 1백98만B/D의 産油量을 記錄하였다. 共產國以外的 非OPEC産油量은 5%가 增加한 2천1백53만B/D에 달하였고, 멕시코의 産油量은 16.4%까지 增加하여 3백만B/D를 나타내었으며, 英國의 北海産油量은 1백84만B/D에서 2백12만B/D로 增加하였다.

BP는 1982年の 美國의 産油量을 8백67만B/D로 推定하고 있는데, 1981年の 美國의 産油量은 8백57만B/D였다.

또한 北美의 石油 및 가스 總生産量은 1981年の 1천1백73만B/D에서 1천1백76만B/D로 增加하였다.

한편 蘇聯의 産油量이 1천2백37만B/D로부터 1천2백45만B/D로 增加한데 비하여 中共의 産油量은 2백4만B/D에서 2백5만B/D로 增加하였다.

世界의 가스生産量은 1981年の 54.12兆입방피트에서 1982年에는 53.7兆입방피트로 減少하였는데, 소련의 生産量이 9.6% 增加하여 17.67兆입방피트가 된데 반하여 美國의 生産量은 8.8%나 減少하여 소련의 生産水準과 같게 되었다.